



##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 영어 관사 용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양은주

# 영어 관사 용법 연구

A Study on English Article Usages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양은주

# 영어 관사 용법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양 은 주

# 양은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영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
I. 서론 .....	1
1. 관사습득 .....	1
2. 관사의 문법적 위치 .....	3
3. 관사의 빈도 .....	4
4.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4
II. 관사의 분류 .....	7
1. Jespersen의 관점 .....	7
2. Huebner의 관점 .....	8
2.1. 유형 1 .....	9
2.2. 유형 2 .....	9
2.3. 유형 3 .....	11
2.4. 유형 4 .....	11
3. Quirk et al.의 관점 .....	12
III. 관사의 용법 .....	15
1. 정관사 용법 .....	15

1.1. 총칭 · 조응 · 상황 · 지시적 ‘the’	15
1.2. 명사가 유일물인 경우	17
1.3.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18
1.4. 최상급 또는 서수와 함께 쓰이는 경우	18
1.5.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19
1.6. 그 밖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21
2. 부정관사 용법	22
2.1. 총칭 용법	22
2.2. ‘One’의 의미	23
2.3. ‘the same’의 의미	23
2.4. ‘certain’의 의미	24
2.5. ‘per’의 의미	24
2.6. 그 밖에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24
3. 무관사 용법	26
3.1. 총칭용법	26
3.2. 물질 · 추상명사 및 복수명사 앞	26
3.3. 교통 · 통신 수단	27
3.4. 공공시설을 나타내는 명사	28
3.5.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28
3.6. 그 밖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30
IV. 관사 교육 실태	34
1. 관사 교육에 대한 논의	34

2. 명사의 가산성과 지시 .....	36
2.1. 명사의 가산성 .....	37
2.1.1. 한국어에서는 가산 명사인데 영어에서는 불가산 명사인 경우 .....	37
2.1.2. 추상 명사이면서 가산 명사 .....	37
2.1.3. 가산·불가산 둘 다 가능한 명사 .....	38
2.1.4. 가산성의 전성 .....	39
2.1.5. 뜻은 비슷하나 가산성 차이가 있는 경우 .....	40
2.1.6. 부분 구문(partitive) .....	40
2.2. 지시 내용 .....	41
2.2.1. 문맥상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41
2.2.2.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42
2.2.3. 유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 .....	43
2.2.4. 수식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	43
3. 교과서 분석 .....	44
3.1. 관사의 종류별 빈도 .....	45
3.2. 정관사의 용법별 빈도 .....	46
3.3. 부정관사의 용법별 빈도 .....	47
3.4. 무관사의 용법별 빈도 .....	48
 V. 결론 및 제언 .....	 49
 참고문헌 .....	 52



## 표 목 차

<표 1> Quirk et al.(1985)의 관사분류 .....	12
<표 2> 지명 .....	19
<표 3> 공공 시설물 · 단체 또는 배 · 열차 이름 .....	20
<표 4> 운동경기 · 신문 · 정치 기구 · 악기 이름 .....	20
<표 5> 지명 .....	29
<표 6> 공공 시설물 이름 .....	29
<표 7> 축제 · 기업 · 잡지 및 행성 · 우주선 .....	30
<표 8> 관사의 종류에 따른 빈도수 .....	45
<표 9> 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	46
<표 10> 부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	47
<표 11> 무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	48

## 그 림 목 차

<그림 1> Huebner의 명사구 지시에 대한 의미적 순환 .....	8
---	---

# ABSTRACT

## A Study on English Article Usages

Eunju Yang

Advisor : Prof. Nangeun Lee.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ages of three articles to understand the article system clearly.

Most native speakers in every country use native language intuitively. The use of English articles by native speakers is especially intuitive. However, Korean speakers, who don't have article system in Korean, have great difficulty in using English articles. The reason why Korean speakers have difficulty in using articles is because most of them think article errors don't have a large influence in communication. So English articles are often ignored and used indiscriminately. For this reason, many Korean learners make article errors.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make proper English article use difficult for Korean speakers. First, there is no article system in Korean. Second, countability and definiteness of nou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English, while they are not in Korean. Third, choice of article is decided in context and discourse. Fourth, because

the education system is overly weighed toward college admission, most educational institu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eaching the article system.

Articles play the role of modifying nouns and these two are inseparable in English. Because no sentence can exist without a noun, there is always a choice of article use. Article errors can completely change the meaning of sentence and make the sentence ungrammatical. Therefor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English articles is required to reduce making grammatical errors. The writer of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to English learners. Second, as a result of this study, detailed instruction on zero article is needed. Third, learning of English articles should take place in paragraph or context, not fragmentary sentences. Fourth, teachers should help students internalize the usage of English articles through practical discourse.

While the usage of English articles is almost regular, it is somewhat limited. Therefore, teachers should teach English article systematically and try to make various activities which can give more communication opportunities to students.

# I. 서론

## 1. 관사 습득

모든 나라의 모국어 화자들은 직관에 의해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경우 관사의 사용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이 화자들은 만 2세쯤부터 *a/an*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3세쯤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관사를 사용하게 된다(Scollon 1976). 하지만 모국어에 관사 체계가 없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관사는 사용상 큰 어려움을 겪는 문법 요소 중의 하나이다.

Whitman(1974)은 영어의 관사는 외국인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며 관사사용의 오류는 그 사람이 모국어 화자가 아니라는 가장 명백한 문법적 증거라고 말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도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외에 관사의 정확한 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따라서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한국 학생들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관사 습득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용진(1980)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관사 사용의 오류 빈도가 9개 항목 중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최현욱(1984)의 연구에서도 7개 항목 중에서 3위로 나타났다.

Master(1994)에 의하면, 학생들이 관사 체계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관사는 문장 안에서 강세가 없으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후 무관사로 표기함)엔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대화상에서 관사 사용의 오류들이 겉으로 보기에 의미전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사는 대개 무시되거나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어서 막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ESL, EFL 학생들은 그들이 작문을 할 때에야 비로소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사 사용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행구(2001)는 영어 관사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어에는 관사체계가 없다. Master(1987)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영어학습자와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있는 독일, 스페인의 학습

자 각각 4명씩을 선정,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관사의 사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집단의 관사 사용의 정확도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있는 집단의 정확도보다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에서는 박기화(1994)가 모국어에 관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학생들과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한국, 일본 학습자들의 영어 관사의 습득정도를 비교하였는데 프랑스와 독일 학습자의 경우는 79.6%와 80.2%로, 한국과 일본 학습자들의 50%와 4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관사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명사의 가산성과 한정성에 대해서 영어는 매우 엄격하나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 한국어는 명사를 가산 또는 불가산명사로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지시대상을 한정하여 표현할 때도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그'가 흔히 생략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명사의 지시대상이 총칭과 특정 지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한정과 비한정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그것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달라진다. 또한 가산성과 한정성 등의 구분 자체도 결코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관사를 선택하는데 적용되는 기준도 한 가지 이상일 때가 많다.

셋째, 관사의 사용은 어휘나 문장차원 뿐만 아니라 담화차원에서도 결정된다. 대부분의 명사는 주어진 문장에서 실체가 있는 가산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물질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불가산명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명사가 무엇인가에 따라 관사의 사용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주어진 문맥이나 담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사는 활용규칙을 내재화하기 어렵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관사 교육을 소홀히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되면서 의사소통중심 교육으로 바뀐에 따라 관사 교육은 문법과 관련된 설명 정도에 그치게 된다. 특히, 현재 대학 입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관사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1999)에 의하면 영어 관사 교육은 대개 문법책의 관련 단원을 다룰 때만 관심의 대상이 되며 독해 시에도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사가 영어 문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법을 위한 문법요소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며 관사의 용법도 대개 특

수한 용법에 치중되어 있으며, 시험에도 문법책에 나오는 몇몇 관사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습현장에서 관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학습자들이 관사 오류를 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정을 받지 못하므로 반복해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 2. 관사의 문법적 위치

영어의 관사는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2002)에 따르면 라틴어의 *articulu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joint'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즉, 관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명사를 수식,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사는 명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관사에는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가 있는데, 이것들은 한국인들이 영문법을 배울 때 대개 맨 처음 배우게 되는 문법요소들이다. 이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정관사 *the*이고 부정관사 *a*도 다섯 번째로 자주 쓰인다고 한다(Johansson, 1982).

어떤 문장이라도 명사가 없는 문장은 없고, 명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관사가 함께 따라 다닌다. 그러므로 명사가 중요한 만큼 관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장에서 관사를 잘못 사용하여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도 한다. 즉, 명사만으로는 온전히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관사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전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사체계를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관사를 직관적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관사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도 관사의 용법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Jespersen(1949)과 같은 문법 학자에 따르면 관사의 사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며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규칙을 분명히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종 숙어적인 표현은 기존의 규칙에 위배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 3. 관사의 빈도

관사는 명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관사 선택의 문제는 명사가 있는 곳마다 나타난다. 영어 문장에서 명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는 어떤 관사를 사용할 것인지를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빈번히 나타나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학성(1996)은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It takes more calories to eat a piece of celery than the celery has in it to begin with. Therefore, the vegetable is included in most weight-loss diets.* (한학성 1996: 15)

(1)의 예문은 관사를 제외하면 총 2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예문 중 8개가 명사 혹은 대명사이다. 따라서 예문 중 20% 정도가 관사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사는 수많은 어휘 중의 2~3개 어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쓸 때마다 대략 4~5개 단어 중에 한 번은 관사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빈도가 높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의 편집자인 John Sinclair는 정관사 *the*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며 *a/an/the* 등의 관사가 모든 영어 텍스트의 8.5%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사 용법에는 관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 관사 용법은 8.5% 보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4.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Corder(1967)는 학습자가 완벽한 교수법을 익힌다면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의 교수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학습자가 범한 오류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간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관사 사용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빈칸 채우기 테스트(Cloze-type Test), 작문테스트(Writing Test)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Master(1987)는 ESL/EFL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에야 비로소 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주장한다.

Yamada & Matsuura(1982)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일본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급 수준인 고등학생들은 *the>a/an>∅* 의 순서로 고급 수준인 대학생들은 *the>∅>a/an* 의 순서로 정확성을 보였는데 이로 보아 관사의 어려움의 정도가 영어능력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정관사 *the*와 무관사는 점점 향상되었으나 이에 반해 부정관사는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았고 정관사는 과다사용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어와 같이 관사체계가 없는 한국인 학습자들도 일본인들과 유사한 오류를 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aster(1987)는 그의 논문에서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학습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일본인 학습자의 관사 사용 정확도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일본인 학습자의 관사 습득 순서는 *∅>the>a/an* 이었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경우 *the>∅>a/an* 순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로부터 정관사 *the*를 과다사용하고 과대일반화 하는 경향을 발견했는데, 부정관사 *a/an*의 경우에는 정관사와는 달리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과다사용이나 과대일반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김영선(1999)은 관사사용 오류를 모국어의 간접으로 인한 오류, 과대일반화 오류, 과소일반화 오류로 분석한 결과, 모국어 간접 오류가 21%였고 영어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류가 60%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무관사 오류가 무려 82%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어에는 없는 관사체계를 배우면서 무조건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김기완(2003)은 빈칸 채우기 테스트와 작문테스트를 가지고 관사 사용 오류를 실험한 결과 전자의 경우 정답률이 68%였고 후자는 58%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이로 보아 빈칸 채우기의 경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관사임을 알고 있으



므로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았으나 작문의 경우는 문맥에 맞는 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문의 오답을 분석한 결과, 관사가 필요한 곳에 무관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관사체계가 없는 모국어의 영향이 반영된 단적인 예라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관사 사용 오류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학습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관사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습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사 사용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관사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관사 습득과 영어에서 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후 관사 오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관사 사용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관사 분류를 바탕으로 관사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관사 용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국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사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관사 지도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실제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고자 한다.

## II. 관사의 분류

### 1. Jespersen의 관점

Jespersen(1949)은 친숙의 정도(Stages of Familiarity)에 따라 관사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1단계는 ‘완전히 생소한 단계’, 2단계는 ‘거의 친숙한 단계’, 3단계는 ‘완전히 친숙한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완전히 생소한 단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 즉 지시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복수형일 경우 또는 불가산 명사일 때 무관사를 취한다.

- (2) a. There came *a soldier* marching along the high road.  
b. He drinks *milk* every morning.  
c. He eats *apples* every day.

(2a)는 명사 앞에 *a*가 붙어서, 특정하지 않은 군인 한 명을 지칭하며, (2b)는 불가산 명사인 우유 앞에 무관사가 쓰였으며 마찬가지로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우유를 나타낸다. (2c)도 복수의 사과를 뜻하며 지시대상이 특정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시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산 명사 앞에서는 부정관사 *a, an*을, 불가산 명사 앞에는 무관사를, 그리고 복수형의 가산 명사 앞에도 무관사를 사용한다.

2단계는 ‘거의 친숙한 단계’로 전체 상황이나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 지시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한다.

- (3) a. Once there lived *an old tailor* in the village. *The tailor* was generally known in the village as the crook.  
b. Shut *the door*, please.  
c. *The king* is dead. Long live king.

(3a)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명사가 다시 나올 때 정관사를 사용한 경우이며, (3b)는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있는 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이며, (3c)는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왕을 지칭하는 경우로 정관사가 사용되었다.

3단계는 ‘완전히 친숙한 단계’로 완전히 친숙하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4) a. *Doctor*, what's wrong with me?

b. *Tom* is her brother, isn't he?

c. *God* bless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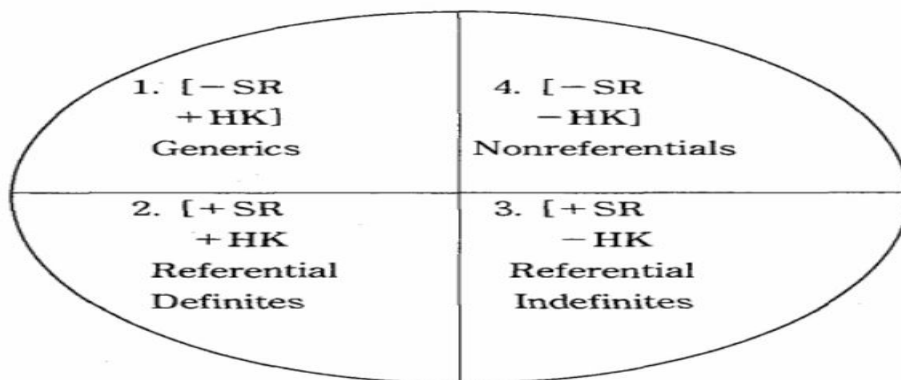
d. *Father* gave me a nice present.

위의 (4)번 예문들의 경우, 고유명사나 *God*, 집 안에서 *father*, *mother* 등 식구를 부르는 경우처럼 지시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친숙한 경우에 무관사를 사용한다.

## 2. Huebner의 관점

Huebner(1985)는 의미순환(Semantic Wheel)에 기초하여 관사를 분류하는데 이원자질(binary features)[+/-Specific Referent]과 청자의 지식[+/-Hearer Known]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Huebner가 분류한 4가지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명사구 지시에 대한 의미적 순환 (Huebner, 1985)



<그림 1>에 있는 Huebner(1985)의 명사구 지시에 대한 의미적 순환 관계에서 유형 1은 일반적으로 ‘관사의 총칭용법’이라 하며, 유형 2는 주어진 명사구가 특정한 어떤 것을 지시하는데 이 지시대상이 청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 유형 3, 4는 어떤 대상을 처음 언급하거나 특별한 지시대상이 없는 경우로 부정관사 *a/an*과 무관사  $\emptyset$ 를 사용한다.

## 2.1. 유형 1

유형 1은 Huebner 모델에서 [-SR +HK]로 표시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총칭적 용법이라 한다. 총칭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관사로는 3가지 전부 이에 속한다. 정관사 *the*, 부정관사 *a/an*, 무관사  $\emptyset$ 가 총칭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를 보면 (5)와 같다.

- (5) a. *A cat* likes fish.
- b. *The cat* likes fish.
- c. *Cats* like fish.

(5a,b,c)의 *A cat*, *The cat*, *Cats*등의 표현은 특정한 고양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양이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는 총칭적(generic)용법이라 한다. Yoko Goto(1999)는 총칭이란 화자가 어떤 특정한 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대표하는 하나의 개체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2.2. 유형 2

유형 2는 특정한 지시대상이 있으면서 이것이 청자에게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SR +HK]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

- (6) a. Pass me *the pen*, please.
- b. I will take *the child* to school today.

(6a)와 같은 문장에서 *the pen*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으로 화자나 청자 모두 알고 있는 것이므로 지시대상이 명확하다. 그러나 (6b)는 부부간의 대화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아이가 자리하지 않더라도 청자는 그 아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위의 예문과 같이 지시대상이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지식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

- (7) a. *The idea* of going to the U.S. was very exciting.  
b. I found *the bicycle* which I used to ride with my brother.  
c. When I found a red box in front of my house, it was too late. *The box* blew up with a terrific explosion.  
d. This book did not sell well even though *the author* was a famous writer.

(7a)의 *the idea*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 *of going to the U.S.*에 의해 수식을 받아 의미가 구체화된다. (7b)의 *the bicycle*도 막연하게 일반적인 자전거가 아닌 관계절 *which I used to ride with my brother*에 의해 수식을 받아 특정한 자전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7a,b)가 뒤에 나오는 구나 절에 의해 수식을 받아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이라면, (7c,d)는 앞에 나오는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7c)에서 *the box*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a red box*를 단순히 가리키는 대용어적 용법이다. 그리고 (7d)에서 *the author*는 앞에서 *author*가 언급된 적이 없지만 화자가 발화를 할 때 청자가 당연히 *book*과 *author*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한 것이다. 즉 *book*과 *author*는 연상어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쉽게 두 단어를 연관 지을 수 있다.

- (8) a. *The first person* to jump into the cold water was my brother.  
b. There are nine planets travelling around *the sun*.

(8a)는 *first*와 같은 서수나 최상급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8b)에서 *sun*은 지구에는 하나의 태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물로서 정관사 *the*를 사용하

는데, 같은 이유로 정관사를 사용하는 단어로는 *the earth, the moon* 등이 있다.

### 2.3. 유형 3

유형 3은 특정한 지시대상이 있지만 청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SR -HK]로 표시하며, 이 경우 NP가 단수가산명사일 때, 부정관사 *a/an*을 사용하고, NP가 불가산명사이거나 복수형태일 때는 무관사  $\emptyset$ 를 사용한다.

- (9) a. I saw *a strange man* standing at the gate.  
b. At the party last night,  $\emptyset$  *girls* danced energetically.

(9a)에서 화자는 특정한 지시대상을 언급하지만 청자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처음 언급된 NP로 앞에 부정관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청자는 *a strange man*이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9b)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특정한 소녀들이 정확히 어떤 소녀들인지 청자는 알 수 없다. 이때는 NP가 가산명사의 복수형이므로 무관사를 취하게 된다.

### 2.4. 유형 4

유형 4는 화자가 언급하는 대상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며 청자가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SR -HK]로 표시한다. 이 경우 NP가 단수가산명사일 때 부정관사를, 불가산명사 또는 복수일 때 무관사를 사용한다.

- (10) a. I'm going to buy *a new bicycle*.  
b.  $\emptyset$  *Foreigners* would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for this matter.

(10a)에서 *a new bicycle*은 특정한 자전거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전거 중에 한 자전거를 뜻한다. 그러므로 청자는 어떤 자전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10b)에서도 *Foreigners*는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총칭을 뜻하지도 않고 청자가 정확하게 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인 NP 앞에 무관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위와 같이 Huebner는 관사를 의미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여기에는 학자들의 비판이 따른다. Huebner는 고유명사나 관용적 표현 그리고 흔히 사용되는 *in the morning, go home, in the future*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단어 덩어리 또는 숙어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분류 유형에서 제외시켰으나, Chesterman(1991)과 Master(1997)는 고유명사와 숙어에 포함되는 관사들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사 용법들도 관사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Quirk et al.의 관점

앞서 보았던 두 학자의 관점이 관사의 의미나 쓰임에 따른 분류를 보여준다면, 다음의 분류법은 화용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관사를 분류하고 있다.

<표 1> Quirk et al.(1985)의 관사분류

관 사	구 분	예 시
정 관 사	직접적 상황	I missed both <i>the lectures</i> this morning.
	유일한 대상	<i>The Pope</i> came to Korea. <i>The sun</i> is rising.
	앞에 나온 어구 반복 사용	He bought a TV, but he returned <i>the TV</i> because it was defective.
	앞에 나온 어구 간접 지시	He bought a new bicycle, but found out that one of <i>the wheels</i> was defective.
	수식을 받아 의미 한정	<i>The President of Mexico</i> is to visit China.

	간헐적 사용	My sister goes to <i>the theatre</i> every month.
	공유하는 대상	Ada and I have <i>the same hobby</i> .
	신체의 일부분	They pulled her by <i>the hair</i> .
	집단 전체	Marianne plays <i>the harp</i> very well.
부 정 관 사	일반적 사물 · 사람 지시	She was <i>a great violinist</i> .
	‘하나’의 뜻	She can walk forty miles in <i>a day</i> .
	집단 전체	The best way to learn <i>a language</i> is to live among its speakers.
무 관 사	불가산명사 · 복수명사	<i>Milk</i> is good for you. <i>Bullets</i> were flying everywhere.
	뜻이 명확할 때	He is (the) <i>captain</i> of the team.
	간헐적 사용	Where are we having <i>dinner</i> tonight?
	평행 구조	They walked <i>arm in arm</i> .
	전치사 포함한 관용구	They went there <i>on foot</i> .
	집단 전체	<i>Tigers</i> are dangerous.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관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전 전통문법 학자들은 명사를 분류하여 관사 용법을 설명해왔으나, 이에 따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적 특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Jespersen(1949), Huebner(1985) 그리고 Quirk et al(1985)의 관점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관사 분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Jespersen의 친숙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3단계를 기본으로 한 후, 좀 더 세분화된 Huebner의 의미순환을 가지고 관사를 의미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예를 제시하고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전적이고 비교적 명확하게 관사를 분류한 Quirk et al의 분류법을 통해 화용적 기능에 따른 관사의 쓰임을 알아보았다.

### Ⅲ. 관사의 용법

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여 그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관사를 지도함에 있어서 그 종류를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강행구(2001)와 Cowan(2008)의 책 내용을 참고해 한학성(1996)의 의견을 요약 정리하여 영어의 관사 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관사 용법

##### 1.1. 총칭 · 조응 · 상황 · 지시적 ‘the’

다음 (11)의 예문들은 정관사 *the*의 각기 다른 쓰임을 보여준다.

- (11) a. *The tiger* is a dangerous animal. (Cowan, R 2008: 221)
- b. She has *a brother* and *a sister*. *The brother* is a university student.  
          *The sister* is still in high school. (Cowan, R 2008: 220)
- c. DO NOT FEED *THE BEARS*.
- d. Her letter appeared on *the op-ed page* of the *New York Times*.  
          (Cowan, R 2008: 222)

(11a)는 단수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특정한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 집단 전체를 지칭하는 총칭의 경우이며, (11b)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을 다시 언급할 때 정관사를 사용하여 조응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11c)는 동물원에서 이러한 표지판을 보게 될 때 표지판에 언급된 곰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지 않더라도 동물원 안에 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지시대상이 분명할 때의 정관사 사용을 보여준다. (11d)는 명사가 전치사구에 의해 의미가 한정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지시적 쓰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관사의 각기 다른 4가지 쓰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총칭용법이란 주어진 NP가 어떤 대상 전체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사를 사용하여 총칭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는 ‘*the*+ 단수명사’와 ‘*the*+ 복수명사’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he*+ 단수명사’의 경우 총칭으로 사용된 것인지 특정 지시를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NP가 총칭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개체 전체의 속성이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야 하며 특정지시의 의미를 가지려면 개체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2) a.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한학성 1996: 109)

b. *The dog* is sitting listening to a record-player. (한학성 1996: 109)

(12a)의 경우 *faithful*이 개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the dog*이 총칭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2b)는 *listening*이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the dog*이 어느 특정한 개 한 마리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조응관계로서의 정관사란 이미 앞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다시 가리킬 때 그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n old tailor* in a small village. *The tailor* was known all over the village as "Old Harry".

(강행구 2001: 42)

b. He had bought us *some presents* for Christmas; but when Christmas came, he could not find *the presents*. (강행구 2001: 42)

c. She poured *some water* in a kettle and put it on the fire; half a minute later *the water* was boiling. (강행구 2001: 42)

(13a)는 앞에서 *tailor*를 언급하여 청자가 인식하도록 한 후 다시 언급함으로써 한정지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3b,c)의 *some presents*와 *some water*도 뒤에서 다시 언급될 때 정관사와 함께 사용된다.

셋째, 어떤 명사가 처음 언급된다 할지라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화자

와 청자가 공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시대상이 특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정관사를 사용한다. 다음의 (14)의 예를 보자.

- (14) a. Pass me *the salt*, please. (강행구 2001: 45)  
b. I met *the principal* at the concert. (강행구 2001: 45)

(14a)의 *salt*는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존재하는 사물을 지시하고 있고 (14b)의 *principal*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이므로 그 명사가 처음 언급되더라도 특별한 설명 없이도 그 지시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넷째, 명사가 부사구나 전치사구 또는 관계절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 정관사가 사용된다.

- (15) a. Look at *the top* of page 221. (강행구 2001: 53)  
b. Of course he kne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강행구 2001: 53)  
c. The people in the village celebrated *the success* which he had made. (강행구 2001: 53)

(15a)의 *top*은 *of-phrase*의 수식을 받아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가지며 (15b)의 *answer*는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한정된 뜻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15c)의 *success*도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만들어 낸 성공이라는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가진다.

## 1.2. 명사가 유일물인 경우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유일한 경우, 사물의 유일성 자체가 한정지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한다.

- (16) a. Look at *the moon* in the sky. (강행구 2001: 51)  
b. Let's try to make *the earth* clean. (강행구 2001: 51)

(16a)의 경우는 지구상에서 달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정지시를 나타내고, (16b)의 *the earth*도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가리키므로 정관사를 사용한다.

### 1.3.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다음 예문은 형용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17) a. *The poor envy the rich.* (한학성 1996: 111)  
b. *The wise avoid such temptations.* (한학성 1996: 111)  
c. *The beautiful is true, the true is beautiful.* (한학성 1996: 112)

(17)의 문장들에서 *the poor, the rich, the wise* 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총칭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the+* 단수명사’를 사용하여 총칭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the+* 형용사’가 사람을 나타낼 경우 복수로 취급하여 복수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지만, (17c)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낼 경우에는 단수로 취급하여 단수형태의 동사를 사용한다.

### 1.4. 최상급 또는 서수와 함께 쓰이는 경우

정관사가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사용되어 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경우와 서수 앞에 사용되어 명사가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의 (18)와 같다.

- (18) a. Tom is *the most diligent* boy in his class.  
b. December is *the last* month of the year.

그러나 위의 (18)의 경우와는 달리 서수와 명사가 일종의 복합 명사 형태로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기능할 때는 부정 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 (19) a.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a foreign language)  
 b. He is *an only child*.

(19a,b)의 *a second language*, *an only child* 는 서수와 명사가 결합하여 ‘제2언어’, ‘외아들’ 이라는 하나의 보통명사의 뜻을 가진다.

### 1.5.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표 2>, <표 3>, <표 4>는 정관사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표 2> 지명

국가 이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the Philippines
산맥 이름	the Alps, the Himalayas, the Rocky Mountains, the Andes
사막 이름	the Sahara, the Gobi Desert
지리적지역 이름	the Midlands, the Middle East, the Punjab
바다 이름	the Pacific, the Atlantic, the Caribbean
해협 이름	the English Channel, the Straits of Dover
강 이름	the Thames, the Mississippi, the Nile
운하 이름	the Suez Canal, the Panama Canal, the Erie Canal
군도 이름	the British Isles, the Hawaiian Islands

(한학성 1996: 139-142)

<표 3> 공공 시설물 · 단체 또는 배 · 열차 이름

고속도로	the A1, the M1, the New Jersey Turnpike
학교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London (일반적으로 관사 없이 사용하지만 학교 이름에 o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관사 사용)
극장, 박물관	the Globe, the Odeon, the British Museum
호텔 및 식당	the Ritz, the Hilton, the Royal Oak
공공단체	the United Nation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배	the Titanic, the Queen Elizabeth, the Mayflower
열차	the Orient Express

(한학성 1996: 142-147)

<표 4> 운동경기 · 신문 · 정치 기구 · 악기 이름

운동경기	the Olympic Games, the World Cup, the Superbowl
신문	The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New York Times
정치기구	the State Department, the Finance Ministry
악기	the piano, the violin, the guitar

(한학성 1996: 146-147)

### 1.6. 그 밖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morning, day, evening, night* 등과 같이 하루 중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전치사 *at, by* 등과 쓰일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전치사 없이 쓰이거나 *in, during*과 같은 전치사와 쓰일 때는 정관사가 사용된다.

- (20) a. *at noon/midnight*  
b. *by night*  
c. *in the evening*  
d. *during the morning*

둘째, 방위나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된다.

- (21) a. Vietnam is to *the south* of China. (한학성 1996: 161)  
b. I was again heading *north*. (한학성 1996: 161)  
c. He turned *left* and walked down the street. (한학성 1996: 161)

동서남북을 나타낼 때 정관사를 사용하여 어떤 나라의 동부, 서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단어들이 (21b,c)와 같이 부사로 사용될 때는 관사 없이 사용된다.

셋째, 공공시설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소인 은행이나 도서관, 우체국 등은 정관사를 사용한다. *baker's, barber's* 등과 같이 가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면 어느 특정 가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과점, 이발소 등과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 (22) a. Many students go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and read until evening.  
b. He might have been to *the barber's* to please his mother.

넷째, *church, school, college, jail* 등과 같은 시설이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그 시설의 본래 목적을 나타낼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건물 자체를 의미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즉 *go to church, go to school, go to college, be in jail, be in prison* 등이 ‘교회에 예배 보러 가다’, ‘공부하러 학교(대학)에 가다’, ‘감옥에 수감 중이다’ 등의 의미를 가질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일 때는 건물 자체를 의미하게 되어 정관사를 사용한다.

- (23) a. visit *the school*  
b. the gate of *the college*  
c. walk around *the jail/the prison*

다섯째, ‘*the*+ 비교급’ 구문은 의미가 점층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24)의 예문이 그러한 경우를 보여준다.

- (24) a. *The sooner the better.*  
b. *The more he gets, the more he wants.*  
c. *The harder you work, the more you will be paid.*

여섯째, 관용적으로 정관사를 사용하는 구문으로는 *by the way, on the contrary, in the morning, in the country* 등등이 있다.

## 2. 부정관사 용법

### 2.1. 총칭 의미

부정관사의 총칭 용법은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 (25) a. *A rose* is beautiful. (강행구 2001: 58)  
b. *A bicycle* has two wheels. (강행구 2001: 58)

(25a,b)는 각각 *a rose*와 *a bicycle*의 속성, 즉 ‘장미는 아름답다’와 ‘자전거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물의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총칭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6) a.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한학성 1996: 105)  
b. *A dog* is sitting listening to a record-player. (한학성 1996: 105)

위의 두 문장은 둘 다 *dog* 앞에 부정관사가 쓰였지만 (26a)는 총칭 용법이며 (26b)는 어떤 개 한 마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26a)는 총칭 용법이므로 모든 개가 충직한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26b)는 '모든 개가 녹음기를 들으며 앉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어떤 개 한 마리가 녹음기를 들으며 앉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2.2. 'One'의 의미

부정관사는 가산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부정관사 *a/an*은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단수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가산 명사 앞에서 사용되어 'one'의 의미를 가진다.

- (27) a.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한학성 1996: 120)  
b. *A stitch* in time saves nine. (한학성 1996: 123)

(27a)의 *a day*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하루'를 뜻하는 'one'의 의미를, (27b)의 *a stitch*는 '제 때의 바늘 한 땀이 아홉 바늘을 던다'란 뜻에서 역시 '한 땀'을 뜻하는 'one'의 의미를 가진다.

## 2.3. 'the same'의 의미

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the same'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28) a.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한학성 1996: 120)  
b. They are of *an age*. (한학성 1996: 123)

(28a)는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는 한데 모인다’라는 뜻을, (28b)는 ‘그들은 동갑이다’라는 뜻으로 둘 다 ‘같은’이라는 ‘the same’의 의미를 가진다.

#### 2.4. ‘certain’의 의미

명사의 지시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반지시 이거나 처음 언급되는 사물이나 사람일 경우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다음이 그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 (29) a. *A man* called you up during your absence.  
b. *A Mr. Jones* came to see you.

(29a,b)의 *a man*, *a Mr. Jones* 둘 다 지시대상이 불분명하여 ‘certain’의 의미로 ‘어떤(어느) 남자’, ‘존스라는 사람’의 뜻을 가진다.

#### 2.5. ‘per’의 의미

(30a,b)의 *a week*, *a pound* 는 각각 ‘-마다’, ‘-당’의 뜻인 ‘per’의 의미를 나타낸다.

- (30) a. She worked five days *a week*.  
b. It costs two shillings *a pound*.

#### 2.6. 그 밖에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주격보어 앞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 (31) a. He is *a teacher*.  
b. He became *an actor*.

(31a)와 같은 문장에서 *be* 동사의 보어인 *a teacher*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시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부정관사를 ‘one’의 의미로 해석하면 아주 어색하게 들리게 된다. *be* 동사의 보어로 사

용되는 부정관사는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다.

둘째, 신문이나 잡지의 한 부를 의미하는 경우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32) a. *a Times* (= a copy of the Times) (한학성 1996: 136)

b. Have you got *a Guardian* I could borrow? (한학성 1996: 136)

셋째, 예술작품이나 제품명 앞에서 부정관사가 사용된다.

(33) a. They've discovered *a new Rembrandt*.

b. He bought *a Ford*.

넷째, 일반적으로 병명은 셀 수 없는 명사로 간주하여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나 *cold*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명은 셀 수 있는 명사로 간주하여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34) a. My son had *a terrible cold* yesterday.

b. I have *a headache* this morning.

다섯째, 가산명사의 단수형에 *such*와 *so*가 쓰일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하는데 그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such*는 명사구를 수식하지만 *so*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관사가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

(35) a. John is *such a nice man*. (*such*+ a+ 형용사+ 명사)

b. John is *so nice a man*. (*so*+ 형용사+ a+ 명사)

c. *What a beautiful girl!*

여섯째, 관용적으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구문으로는 *as a result of*, *as a matter of fact*, *a few*, *a little*, *have a cold* 등등이 있다.

### 3. 무관사 용법

#### 3.1. 총칭용법

무관사를 사용하여 총칭용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 불가산명사’ 또는 ‘∅+ 복수형명사’의 형태가 있다. 총칭용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36) a. *Owls* are awake. (강행구 2001: 67)
- b. *Owls* are intelligent. (강행구 2001: 67)
- c. *Lead* is heavier than iron. (강행구 2001: 68)

(36a)의 *awake*는 *owls*의 속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36b)의 *intelligent*는 *owls*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총칭용법임을 알 수 있다. (36c)의 *lead*와 *iron*은 불가산명사로서 무관사를 사용해 총칭용법을 나타낸다. 그런데 *man*과 *woman*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형만으로도 총칭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 (37) a.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한학성 1996: 117)
- b. *Woman* will be the last thing civilized by *man*. (한학성 1996: 119)

(37a)의 *man*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37b)의 *woman*도 무관사 단수형이 여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 3.2. 물질·추상명사 및 복수명사

무관사 ∅는 일반적으로 불가산명사(물질명사 또는 추상명사) 앞에 사용된다.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 (38) a.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 b. *Education* is becoming more specialized these days.

(38a,b)의 *water, education*은 각각 물질명사와 추상명사이므로 무관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관사  $\emptyset$ 는 가산명사의 복수형과도 함께 사용되며, 집합명사 *people* 앞에서도 무관사가 사용되는데 다음 (39)의 예문이 그러한 예이다.

- (39) a. I had *eggs* for breakfast.  
b. There are *tables* in the corner.  
c. *People* began to wonder what he was up to.

### 3.3. 교통 · 통신 수단

교통수단을 가리키는 명사가 전치사 *by*와 함께 사용되면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by* 이외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전치사 없이 사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 (40) a. They went *by plane*, but we prefer to travel *by train*.  
(Cowan, R 2008: 217)  
b. He got off *the train* at Penn Station. (Cowan, R 2008: 218)  
c. She took *a plane* to Toledo. (Cowan, R 2008: 218)

마찬가지로 통신 수단을 가리키는 명사가 다음의 (41a)처럼 전치사 *by*와 함께 사용되면 교통수단의 경우와 같이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도 (41b)와 같이 *by* 이외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전치사 없이 사용될 때는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 (41) a. You can contact him *by phone*. (Cowan, R 2008: 217)  
b. It is not a good idea to send money through *the mail*.  
(Cowan, R 2008: 218)  
c. We spoke briefly over *the phone*. (Cowan, R 2008: 218)

### 3.4. 공공시설을 나타내는 명사

공공시설을 나타내는 명사 즉 *church, school, college, hospital, jail* 등이 그 장소 자체 보다는 본래의 목적을 나타내거나 그곳에서 행해지는 행위나 업무 등을 의미할 경우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42) a. He goes to *church* every week.  
b. They were both sent to *jail*. (Cowan, R 2008: 216)

(42a)의 *church*는 장소를 의미하기 보다는 ‘예배 보러 가다’라는 행위의 의미가 강하고, (42b)의 *jail*도 역시 ‘수감되었다’라는 상태의 의미가 강하므로 무관사가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hospital*의 경우에는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간에 차이가 있는데 영국영어에서는 이 단어도 *church* 등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목적일 때는 무관사를 취하고 건물을 의미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지만 미국영어에서는 본래 목적일 때도 정관사를 사용한다.

- (43) a. Lucy is in *hospital*. (British English) (Cowan, R 2008: 217)  
b. Lucy is in *the hospital*. (American English) (Cowan, R 2008: 217)

### 3.5.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 명사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단 고유 명사 자체를 셀 수 없는 명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title)가 사용될 때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44) a. *Mary* is a successful interior decorator. (Cowan, R 2008: 216)  
b. I would like you to meet *Dr. Phillips*. (Cowan, R 2008: 216)

그 밖에 무관사를 취하는 고유명사의 종류로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5> 지명

대륙	Asia, America, Europe, Africa
국가	Korea, Japan, China, France, Germany
주	California, Texas, Iowa, Oklahoma, Mississippi
도시	Seoul, London, Washington, Boston
산	Mount Everest, Mont Blanc, Mount Fuji
호수	Lake Michigan, Lake Victoria, Lake Travis
섬	Borneo, Sicily, Bermuda, Easter Island, Long Island
만	San Francisco Bay, Hudson Bay

(한학성 1996: 139-141)

<표 6> 공공시설물 이름

역 및 공항	Seoul Station, Kimpo Airport, Kennedy Airport, Waterloo Station
교량	Brooklyn Bridge, Tower Bridge, Waterloo Bridge
일반도로	Oxford Street, Pennsylvania Avenue, Park Lane, Broadway
광장	Berkeley Square, Leicester Square, Washington Square
공원	Central Park, Hyde Park
궁전	Buckingham Palace, Kyongbok Palace
학교	Carnegie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종교시설	Canterbury Cathedral, Westminster Abbey

(한학성 1996: 142-144)



<표 7> 축제 · 기업 · 잡지 및 행성 · 우주선

축제 및 휴일	Christmas, Easter, Ramadan, St. Valentine's Day, Mother's Day, New Year's Day
기업	General Motors, Sony, Shell, Hyundai, Nissan
잡지	Punch, Newsweek, Time, New Scientist, Linguist Inquiry
행성	Mercury, Venus,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Pluto
우주선	Challenger, Apollo 17

(한학성 1996: 145-148)

### 3.6. 그 밖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요일이나 달 이름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요일(총칭적) 또는 어느 특정한 요일을 의미할 때는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사용한다. 계절명도 문맥상이나 상황에 따라 정관사나 무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45) a. She usually goes skiing in *December*. (Cowan, R 2008: 217)  
 b. He always visits his mother on *a Tuesday*. (Cowan, R 2008: 217)  
 c. That was *the December* when it snowed over 30 inches in two days. (Cowan, R 2008: 217)

달 이름 앞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45a)와 달리 (45b)는 ‘매주 화요일’이라는 특정 요일을 의미하므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45c)는 *December*가 뒤에 오는 절의 수식을 받아 한정된 의미를 가지므로 정관사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 (46) a. I do some rock-climbing in *the summer*, ski in *the winter*.  
 (한학성 1996: 153)

- b. It was a wide, high-ceiling room, excessively cold in *winter*.  
(한학성 1996: 153)

(46a)는 여름에 하는 스포츠와 겨울에 하는 스포츠가 다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계절명 앞에 정관사를 사용한 경우이고 (46b)는 어느 특정한 겨울이 아닌 일반적인 4계절 중의 한 계절로서의 겨울을 뜻한다.

둘째, 질병 이름의 경우에는 관사 용법이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에 따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병명일 때는 정관사를, *cold*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명은 부정관사를 사용하는데 그 외로 일반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병명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7) *AIDS, cancer, diabetes, influenza, malaria, rabies, typhoid* . . .

- (48) a. He suffers from *influenza*.  
b. She came down with *typhoid*.

셋째, 규칙적인 식사를 의미할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단어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거나 특정한 경우의 식사를 의미할 경우에는 관사와 함께 사용된다.

- (49) a. It is time for *lunch*.  
b. We had *a nice breakfast*.  
c. *The dinner* after his retirement party was quite lavish.

넷째,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가산명사가 전치사나 등위접속사로 결합되는 경우 무관사를 취한다.

- (50) a. This will affect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b. That is privileged information between *lawyer and client*.  
(Cowan, R 2008: 218)

(50a,b)의 *husband, wife* 그리고 *lawyer, client*와 같이 의미상 관련이 있는 가산 명사로 이루어진 병렬구조일 경우 무관사를 취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서로 뜻이 반대되는 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로는 *from right to left, from top to bottom, from head to foot* 등등이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무관사를 취한다.

- (51) a. They went from *place to place*. (Cowan, R 2008: 218)  
b. *face to face, man to man, side by side, day by day* . . .

다섯째, *and*나 *or*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명사 혹은 명사구에서 두 번째 단어 앞에는 무관사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문은 *west* 앞에 무관사를 사용하여 앞에 있는 정관사가 두 명사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 (52) a. Storms affected *the north and west* of the country.  
b. *a knife and fork, the King and Queen, a bride and bridegroom*.

(52a,b)와 같이 두 번째 명사 앞에 무관사를 사용하면 접속사로 결합된 두 개의 명사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여섯째, 신문 헤드라인이나 광고 및 표지판에서는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로 문장을 압축하여 표현하는데 이때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 (53) a. *Indonesian First Lady Dies of Heart Attack* (한학성 1996: 173)  
b. *Slippery When Wet!* (Cowan, R 2008: 218)

일곱째, 명사가 호격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누군가를 부르는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54) a. *Waiter*, bring my bill please.  
b. *Boys*, be ambitious.

여덟째, 가족이나 친족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 *father, mother, baby, brother, sister* 등은 고유명사로 간주되어 관사 없이 사용된다.

- (55) a. *Mother* is at home, but *father* went out.  
b. *Uncle* teaches me English every night.

아홉째, 명사 앞에 *this, that, my, your, his* 등과 같은 한정사가 위치할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56) a. *His father* is a doctor.  
b. This is *my friend*.

열째, 일반적으로 스포츠 이름이 ‘*play*’ 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57) a. He plays *football* in this afternoon.  
b. Do you play *tennis* with your father?

또한 관용적으로 무관사를 사용하는 구문으로는 *in case of, on top of, take care of, pay attention to, take place* 등등이 있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관사의 용법을 살펴본 결과, 관사에는 규칙적인 용법들도 있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사를 사용해야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같은 명사라도 속해 있는 문맥과 그 의미에 따라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관사 사용여부와 관련해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사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문법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사 사용 오류는 체계적인 관사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앞에서 말한바 있듯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관사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IV. 관사 교육 실태

### 1. 관사 교육에 대한 논의

류성렬(1994)은 교육현장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관사 학습 내용이나 지도법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관사 학습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규칙은 있지만 추상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에게 관사 용법은 규칙적이라기보다는 불규칙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교육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단순한 암기 및 이해 위주의 학습방법을 문제로 들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배운 규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순히 그 규칙을 암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셋째, 단편적인 예문만을 제시하여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등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사 사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한다. 영어 학습은 분리된 어휘나 문장 수준이 아니라 유의미한 문맥이나 담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학습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어떤 관사를 사용할 것인지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강행구(2001)는 교육현장에서 영어교사가 관사의 체계가 아닌 예만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그 예들을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는 식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관사의 기본원리조차 배우지 못해서 적절한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영문법 서적들 중 관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은 별로 없으며, 온전히 관사만을 다룬 서적도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있어도 예들을 나열하는 식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관사 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특수한 용법에만 치중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8%이며, 무관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관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영어 관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사가 문법책에 포함된 관사 관련 내용을 다룰 때에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이나 문법책에서 다루어지는 관사 관련 내용은 관사의 종류, 용법, 그에 대한 예들을 제시하는 수준

인데 이러한 관사 교육은 실제 관사 사용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학성(1996)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관사의 유무나 특정 관사의 선택으로 인해 의미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로 다음을 보도록 하자.

(58) Love at First Sight: Does *the Love* Last? (한학성 1996: 14)

아마도 많은 학습자들이 (58)의 ‘Does the Love Last?’ 라는 문장을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가?’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Love 앞에 있는 정관사 *the*는 이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앞에 나온 *Love at First Sight* 라는 특정한 사랑을 의미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Does the Love Last?’ 라는 문장은 ‘첫눈에 반한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가?’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둘째, 잘못된 영어 문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59) a. \*Tom likes some *informations* about flights.

b. \*She likes *dog*.

(59a)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인 *information*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었고 (59b)는 셀 수 있는 명사인 *dog*이 복수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셋째, 덜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처럼 가르치는 경우이다.

(60) a.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한학성 1996: 33)

b.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한학성 1996: 33)

(60)의 두 문장은 명사 앞에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사용하여 총칭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만 총칭적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61) *Dogs are faithful animals.* (한학성 1996: 33)

(61)과 같이 복수형에 의한 총칭적 표현이 위의 두 가지 방식보다 더 일반적이지만, 실상 교육현장에서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다.

넷째, 기계적인 교육 때문에 예외를 무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서수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이다.

(62) a. *It was a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한학성 1996: 38)

b. *Is that what a best friend is for?* (한학성 1996: 39)

c. *He is an only child.* (한학성 1996: 40)

(62a,b)처럼 명사가 서수나 형용사의 최상급과 함께 쓰여 복합 명사로서 보통 명사화 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only*와 같이 유일한 사물을 지칭할 경우에는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위의 (62c)와 같이 복합 명사를 이룰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영어 관사 교육의 문제점은 관사에 대한 단편적인 예문만을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관사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교사와 학생 모두가 관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관사를 지도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2. 명사의 가산성과 지시

한학성(1996)은 영어 관사의 문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 중의 양자택일의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사의 수(number)와 지시 내용(reference)의 결정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관사를 가르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명사의 가산성과 지시 내용을 강조하는데, 먼저 관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을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명사의 가산성을 비교적 쉬운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영어의 명사들 중에는 가산성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학성(1996)은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명사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 2.1. 명사의 가산성

### 2.1.1. 한국어에서는 가산 명사인데 영어에서는 불가산 명사인 경우

- (63) a. \*We need to buy several *furnitures*.  
b. \*This book contains many *informations*.  
c. \*Please help me pack some *packages*.

(63a,b,c)의 예문들은 한국인들이 가산 명사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영어에서는 불가산 명사에 속하는 단어들이 *furniture*, *information*, *package*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경우를 보여준다. 다음의 단어들은 위의 경우처럼 가산 명사로 착각하기 쉬운 영어 단어들이다.

- (64) *advice, baggage, behavior, courage, equipment, evidence, food, fun, furniture, homework, homework, information, luggage, money, news, research, trouble, work* . . . (한학성 1996: 47)

### 2.1.2. 추상 명사이면서 가산 명사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중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셀 수 있는 명사들도 있다.

- (65) a. I already have *plans* for this evening.  
b. *The problems* are now completely solved.  
c. She has *an idea* of how to solve the problem.

(65)의 예 이외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minute, hour, day, week, month, year* 등



과 중량을 나타내는 *pound*, 길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inch*, *mile* 등도 추상 명사지만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한다.

### 2.1.3. 가산 · 불가산 둘 다 가능한 명사

동일한 명사가 어떤 때에는 가산 명사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사의 예들은 (66)과 같다.

- (66) a. We hooked some *fish* in the pond  
b. We should have *fish* for lunch.  
c. One day a *chicken* was out in the forest.  
d. You have a choice of entree today: beef or *chicken*.

(66a,c)의 *fish* 와 *chicken*은 온전한 생선, 닭을 나타내므로 가산 명사이지만, (66b,d)는 온전한 개체가 아닌 음식, 즉 음식 재료인 물질 명사로서의 생선과 닭을 의미하는 불가산 명사이므로 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또 다른 명사들은 *onion*, *apple*, *stone*, *brick*, *cabbage*, *chicken*, *chocolate*, *fish*, *lettuce*, *rock*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명사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

- (67) a. The room was littered with scraps of *paper*.  
b. The man is reading a *paper*.  
c. The magnet has attraction for *iron*.  
d. I burned my hand on an *iron*.

(67a,b)의 *paper*는 각각 ‘종이’ 와 ‘신문’을 의미하고 (67c,d)의 *iron*은 각각 ‘철’ 과 ‘다리미’를 의미하는데 이는 (66)의 예문이 보여주는 경우와는 달리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명사들로는 *light*, *business*, *beauty*, *room*, *glass*, *work*, *bank* 등등이 있다.

#### 2.1.4. 가산성의 전성

Jespersen(1933)은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많은 단어들이 어떤 경우에는 셀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셀 수 없는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가산성의 전성(convert)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항상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으므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어에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a unit of, a type of, an instance of* 등의 일정한 단위나 종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일 경우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68)이 그러한 예이다.

- (68) a. \*All around the world, people drink *a tea*.  
b. Would you like *a tea*?

*tea*가 (68a)와 같이 물질 명사로 사용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a cup of tea*의 의미일 때는 (68b)와 같이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경우처럼 가산성이 전성되는 또 다른 단어들은 주로 마실 것을 나타내는 명사로 *brandy, Coke, juice, lemonade, milk, coffee, beer* 등등이 있다. 다음으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종류(type)를 나타내는 경우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는 경우이다.

- (69) a. My favorite dessert is *goat cheeses*.  
b. We stock a wide range of *perfumes*.  
c. We offered roast *meats* and *soups*.

(69)는 *cheese, perfume, meat, soup* 과 같은 셀 수 없는 명사가 *a type of*의 의미로 사용되어 셀 수 있는 명사로 가산성이 전성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또 다른 명사들은 *wine, bread, jam, medicine, food, brandy, coffee, paint, sauce, soup, tea, wood* 등등이 있다.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되는 또 다른 경우는 (70)에서 볼 수 있다.

- (70) a. The job demands skill and *experience*.  
 b. What I write about are real life *experiences*.

(70a)에서 *experience*는 일반적인 의미의 경험을 뜻하지만 (70b)에서는 구체적인 특정한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an instance of의 의미인)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성된 경우이다.

### 2.1.5. 뜻은 비슷하나 가산성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가산성에는 차이가 있는 명사들이 있다.

- (71) a. *a job* / \**a work*  
 b. *a bag* / \**a baggage*  
 c. *a suggestion* / \**an advice*

(71a,b,c)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두 단어가 하나는 가산명사 다른 하나는 불가산 명사로 구분되어 관사 사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job*, *bag*, *suggestion*과 같은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나 *work*, *baggage*, *advice*와 같은 단어는 추상적인 의미가 강해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되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 2.1.6. 부분 구문(partitive)

셀 수 없는 명사가 양(quantity)이나 질(quality)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쓰일 경우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를 소위 부분사(partitive)라고 한다. 예를 들어 *information* 이라는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a piece of*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면 ‘*a piece of information*’ 으로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사와 함께 사용되어 명사를 셀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 (72) a. *a loaf of bread, a sheet of paper, a bar of soap*  
 b. *an acre of land, a liter of wine, a gallon of oil*  
 c. *a bag of chips, a pocket of cigarettes, a box of chocolates*

또한, ‘-ful’로 끝나는 양적 표현인 *a two spoonfuls of sugar, a handful of bread, a mouthful of whisky* 등등으로도 사용되며, 이뿐만 아니라 질적 표현인 *a new kind of telephone, a delicious kind of chips, a sort of noises* 등등과도 가능하다.

이제까지 관사를 가르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인 수와 관련된 명사의 가산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관사의 사용은 명사의 가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그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셀 수 있는 명사가 반드시 모든 경우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인 것은 아니므로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학성(1996)이 주장하는 관사를 가르칠 때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인 지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2.2. 지시 내용

해당 명사의 가산성과는 상관없이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문맥에 나타나 있는지 혹은 유추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관사 *the*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한학성(1996)은 크게 문맥상, 상황에 의해 그리고 유일한 사물이나 수식에 의한 총 4가지 경우로 지시 내용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2.2.1. 문맥상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관사를 배울 때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뒤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명사의 지시 대상이 앞의 것과 동일하므로 정관사 *the*를 사용 한다’고 배운다. (73)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 (73) a. I met *a boy* and *the boy* showed me a way. (한학성 1996: 67)  
 b. I met *a boy* and *he* showed me a way. (한학성 1996: 67)

그러나 Berry(1993)와 Christophersen(1939)에 따르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73a)와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정관사 *the*를 사용하기보다는 (73b)처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사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명사를 반복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에 의해 지시 대상이 결정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74) a. My parents bought me *a piano* but I don't like *the thing*.  
 (한학성 1996: 70)

b. Then I saw *a car* parked by the side of the road. *The driver* was asleep. (한학성 1996: 72)

(74)의 예는 문맥상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74a)의 *thing*은 처음 나온 명사이지만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thing*이 앞에 있는 *piano*를 지시함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74b)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사를 뒤에 사용하는 경우 두 명사들 사이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관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74b)에서 *driver*는 막연한 운전자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car*를 소유한 특정한 운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한 것이다.

### 2.2.2. 상황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75)는 문맥상으로 어떠한 도움 없이도 상황에 의해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75) a. Pass me *the butter*, please.

b. Can I have *the menu*, please?

c. *The president* is visiting Korea now.

(75a)는 식사 중인 상황에서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버터를 건네 달라는 의미이므로

화자나 청자가 *butter*의 지시 대상이 눈에 보이는 식탁 위의 버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75b)는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75c)는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눈에 보이거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므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지시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president*가 지시하는 대상이 특정한 한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

### 2.2.3. 유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유일한 경우에도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의 유일함 자체가 한정지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 (76) a. Look at *the moon* in the sky.  
 b. There'll be *a new moon* tonight.

(76a)의 경우는 지구상에 달은 하나뿐이므로 한정지시를 나타낸다. 그러나 유일한 대상이더라도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6b)의 *a new moon*은 초승달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달 중에 하나의 달을 지시하므로 부정관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도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가르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2.2.4. 수식에 의해 지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명사가 수식어에 의해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정관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관사나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77) a. John was *the first child* who came to school.  
 b. John is *a first child*.  
 c. Look at *the top* of page 100.  
 d. He is *a child* of six.

(77)의 경우는 명사가 각각 서수나 *of-phrase*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77a)는 *child*가 서수인 *first*의 수식을 받아 유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정관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러한 서수가 명사와 복합 명사를 이루는 (77b)의 경우에는 부정 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77c)는 *top*이 *of-phrase*에 의해 수식을 받아 ‘100페이지 맨 위’라는 유일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정관사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명사가 *of-phrase*의 수식을 받더라도 그 지시 대상이 유일하거나 정해진 것이 아닌 (77d)와 같은 경우라면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전치사구나 관계절,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학성(1996)은 명사가 이러한 수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대상이 유일한 것이 아닐 때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과대 일반화해서 가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 3. 교과서 분석

앞서 논의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학성(1996)이 제시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각 관사별로 교과서에 나오는 빈도수와 관사의 어떤 용법이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분석 교과서는 현재 많은 중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Middle School English*(김덕기 외 2009, 2010, 2011)의 각 학년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교과서는 각 학년마다 총 1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영역은 독해(Reading) 부분으로 제한한다.

교과서는 *Listen and Talk* 부분에서 한 쌍의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말하면서 본문과 관련된 주제를 미리 접하도록 한 후, *Real-Life Activity*를 통해 앞에서 익힌 표현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되어 있으며 재미있는 게임이나 만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와 언어 형식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3.1. 관사의 종류별 빈도

관사의 용법에 따른 분류에 앞서 교과서에 나오는 관사의 종류별 빈도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관사의 종류에 따른 빈도수

학년 \ 빈도수	정 관 사	부 정 관 사	무 관 사	총 계
1 학년	60(20%)	51(18%)	180(62%)	291
2 학년	87(17%)	75(14%)	360(69%)	522
3 학년	143(19%)	98(13%)	508(68%)	749
총 계	290	224	1,048	1,56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학년 모두 관사의 종류에 따른 빈도수는 무관사가 다른 두 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학년의 교과서일수록 본문에 포함된 단어수가 많고 본문도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사의 사용이 많아 짐을 알 수 있고 1~3학년 공통적으로 부정관사 보다는 정관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더 많이 사용했다기보다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정관사가 부정관사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관사 교육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들이 관사의 특수한 용법에만 치중할 뿐 무관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표 8>의 내용은 무관사의 빈도수가 다른 두 관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과서에 나타나는 무관사의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무관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사를 지도함에 있어서 무관사는 그 빈도가 높은 만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 3.2. 정관사의 용법별 빈도

먼저 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9> 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관 사	용 법	학 년			총 계
		1	2	3	
정 관 사	총칭 · 조응 · 상황 · 지시	47	62	109	218
	명사가 유일물인 경우	2	6	3	11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0	0	4	4
	최상급 또는 서수와 함께 쓰이는 경우	2	6	12	20
	고유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5	2	5	12
	기 타	4	11	10	25
총 계		60	87	143	29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사의 여섯 가지 용법 중 첫 번째 항목인 총칭 · 조응 · 상황 · 지시적 용법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다시 가리킬 때 그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조응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기타 용법 중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용적인 표현들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관사 용법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조응 관계를 비롯한 다른 용법들에 대한 학습이 어휘나 단편적인 문장을 통한 단순한 용법 암기보다는 담화나 문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3.3. 부정관사의 용법별 빈도

부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부정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관 사	용 법	학 년			총 계
		1	2	3	
부 정 관 사	총 칭 용 법	0	1	1	2
	‘One’의 의미	15	18	15	48
	‘the same’의 의미	0	1	0	1
	‘certain’의 의미	24	41	65	130
	‘per’의 의미	0	1	1	2
	기 타	12	13	16	41
총 계		51	75	98	224

<표 10>을 통해 부정관사는 명사의 지시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반지시 이거나 처음 언급되는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명사의 가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수 가산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one’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기타 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로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한 것과 관용적인 표현들이 해당된다. 그 외의 부정관사 용법들은 극 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다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3.4. 무관사의 용법별 빈도

마지막으로 무관사의 용법별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관사나 부정관사 중 어느 것도 사용되지 않는 형태인 무관사는 명사의 가산성 즉, 물질명사나 추상명사인 불가산명사인가 혹은 복수형 명사인가와 크게 관련 있기 때문에 정관사나 부정관사의 용법에 비해 예외적인 용법이 더 많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무관사의 용법별 빈도수

관 사	용 법	학 년			총 계
		1	2	3	
무 관 사	총 칭 용 법	0	1	2	3
	물질 · 추상명사 및 복수명사 앞	82	185	302	569
	교통 · 통신 수단	0	0	0	0
	공공시설을 나타내는 명사	0	11	15	26
	고유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53	85	94	232
	기 타	45	78	95	218
총 계		180	360	508	1,048

<표 11>의 내용으로 보아 물질 · 추상명사 또는 복수명사 앞에서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용법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과 그 다음으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앞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무관사의 기타 용법 중에서는 다른 한정사와 함께 사용될 때 그 앞에 관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에서는 관사 사용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관사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문들을 통해서 각 관사들의 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사 교육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사 지도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한학성(1996)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참고로 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관사의 종류별 빈도수와 용법별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영어의 관사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습득할 수 없는 문법요소 중의 하나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은 관사를 따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문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거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는 관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에 의해서만 습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하기를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상대적으로 문법이나 작문 수업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학생들의 작문 실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대학입학시험이나 기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만을 위주로 한 용법별 암기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사를 활용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므로 올바른 관사 사용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론에서 명사가 없는 문장은 드물고 명사와 관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서 명사의 빈도수가 가장 많으므로 관사도 명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학습자들은 빈번하게 관사를 접하지만 그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 다른 문법 요소들에 비해 관사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생략할더라도 의미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학습자들은 관사를 빈번하게 접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관사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학습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논의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교과서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한승희

(2003), 강행구(2001), 류성렬(1994), Pica(1983)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어에는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하는 한정사가 없다. ② 부정관사의 경우, 뒤에 오는 명사의 가산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영어만큼 엄격하지 않다. ③ 영어에서 지시사는 명사의 수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④ 한국어에서는 명사구 안에 두 개 이상의 수식어가 있을 때 고정된 어순이 없으나 영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어순대로 위치해야 함을 학생들이 인지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무관사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통해 1~3학년 모두 무관사의 빈도수가 다른 두 관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교육현장에서 무관사 지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무관사는 정관사나 부정관사 용법에 비해 사용되는 경우의 수가 광범위하고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도 많으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헛갈리기 쉬운 용법들에 대한 다양한 예문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용법을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단락이나 문맥을 예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과서 분석 결과 중 하나로 정관사의 조용 용법이 교과서에 나타나는 빈도수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로 보아 어휘나 단편적인 문장수준의 예문이 아니라 단락이나 문맥을 통하여 그 안에서 관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먼저 각각의 관사 용법을 학습한 다음에 유의미한 단락 안에서 이 세 가지 관사를 모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관사의 종류에 따른 용법을 실제적 담화를 통하여 내재화시킨다. Pica(1983)는 영어 관사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담화와 관련해서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ESL, EFL 관련 서적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관사 용법과 길이나 방향을 묻고 답할 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관사사용을 비교한 결과 어떤 관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관사는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담화 안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담화의 내용으로는 기존의 만들어진 자료 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을 제시한다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학습자가 관사를 학습함과 동시에 이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더 많은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행구. (2001). 『영어관사의 체계와 습득의 실제』. 장복환. 서울: 경진문화사.
- 김기완. (2003).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덕기 외. (2009).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 김덕기 외. (2010).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김덕기 외. (2011).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 김민경. (2003). 문법 의식상승 활동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관사 습득과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선. (1999). 영어 관사의 오류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우. (1999). 영어 정관사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동. 영어의 관사용법. 『부산여대 논문집』, 14, pp.23-58.
- 김진희. (2004). 한국 중학생의 영어 관사 습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 류성렬. (1994). 영어학습자를 위한 관사의 효과적인 교수방법.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 박기화. (1994). 외국어로서의 영어 관사 기능의 습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선옥. (2006).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관사사용의 분포와 오류유형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pp.161-185.
- 백선주. (1982). 관사 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용진. (1980). 영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미라. (2010). 중학생의 영어 관사 사용의 오류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성옥 · 안길진. (2001). 의미 기능에 의한 영어 관사 분석. 『영어영문학연구』 ,  
45, no.2 , pp.175-194.

주세정. (2006). 중학생의 영어 관사 오류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현욱. (1984). 한·영 중간언어에 나타난 오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승희. (2003). 영어 관사에 대한 연구 및 지도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한학성. (1995). 영어 관사의 문법: 국내 관사 교육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관사 교육 기본 모형의 모색. 『언어연구』 , 13, pp.109-146.

\_\_\_\_\_. (1996). 『영어 관사의 문법』. 지현구. 서울: 태학사.

Berry, R. (1993). *Collins Cobuild English Guides 3: Articl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Butler, Yoko Goto. (1999). *The role of metacogni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article system among nonnative speak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Chesterman, A. (1991). *On definitenes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Fin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sen, P. (1939). *The Articles: A Study of Their Theory and Use in English*. Copenhagen & London: Munksgaa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pp.161-170.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ebner, T. (1985). System and variability in interlanguage syntax. *Language Learning*, 35, pp.141-163.
- Jespersen, O. (1933). *The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d & Winston.
- \_\_\_\_\_.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I: Syntax*. London: Allen and Unwin.
- Johansson. (1982). *The Frequency of English words*. Applied linguistics.
- Master, P. (1986). Teaching the English Article to Foreign Technical Writing Students. *The Technical Writing Teacher*, 13, no.3, pp.203-210.
- \_\_\_\_\_. (1987). *A Cross-linguistic Interlanguage Analysis of the Acquisition of the English Article System*.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_\_\_\_\_. (1994).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The English article system: Acquisition, function, and pedagogy. *System*, 25, pp.215-232.

- Pica, T. (1983).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N. Wolfson & E. Judd. Rowley, Mass: Newbury House.
-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New York: Longman.
- Scollon, P. (1976). *Conversations with one-year old: A case of the developmental foundation of syntax*.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ebster, M. (200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Inc.
- Whitman, R. (1974). Teaching the article in English. *TESOL Quarterly*, 8, no.3, pp.253-262.
- Yamada, J & Matsuura, N. (1982). The use of the English article among Japanese students. *RELC Journal*, 13, no.1, pp.50-63.